

전주 남부시장에 '문화공판장 작당' 개관

옛 원예공판장 2층에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21일까지 개관 기념 그래피티 전시 개최

전주 남부시장 내 옛 원예공판장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문화 관련 단체,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판장 작당'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범기 시장의 기념사와 이기동 의장의 축사, 조선팝 축하공연, 그래피티 퍼포먼스 및 문화공판장 작당 개막식,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부시장 옛 원예공판장 2층에 들어선 문화공판장 작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대규모 전



전주시는 지난 12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문화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판장 작당' 개관식을 개최했다.

시·행사 공간, 전시실, 문화교육장, 공유공간, 야외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문화공판장 작당에서는 지난날 2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관을 기념

한 그래피티 전시 '희망의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의 힘'이 열리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100 필름 100포스터 전시'와 '전주세네투어 영화 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에는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가 열리는 등 향후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공판장 작당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전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제44회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일 장애인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제44회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4회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일 전주시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하는 모두가 행복한 전주가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생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힘써 전주가 일상에서 다 함께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장애인·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장애인·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김욱기 기자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함께해요"

전주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지난 12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상가 일대에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상가 일대에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근 상가밀집지역에서 현수막과 표지판을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들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해 서부신시가지지를 방문한 시민들과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1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오는 7월 '재활용품 요일별 지정품목 배출제'와 '일불 후 배출제'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조문성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1회용품 감량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1회용품 감량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일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1=1회용품, 0=zero)로 지정하여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마스터 요원 활동으로 촘촘한 복지 실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직원 5명 분야별 활동 진행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올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지킴 속도가 탁월한 생활복지과 직원 5명을 마스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 활동을 진행 중이다.

'마스터 요원'은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 역량 및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 △차상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신규자 전담 멘토별도 위촉, 각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지원으로 구·동 간 유기적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스터 요원들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사회복지 정책과 전산에 대한 교육, 수시 질의응답 및 원격 지원을 통한 업무지원, 신규직원 1:1 전담 멘토 등 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 업무 능력 향상에 특히 노력할 예정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도 생활복지과 직원 5명을 마스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 역량 향상과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효자4동 자생단체, 릴레이 환경정화활동 나서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진열) 및 통장협의회(회장 조재희)에서는 지난 12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관내 취약지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선수범하여 쾌적한 동네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효자4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재단 등 자생단체들은 매일 3~4회 릴레이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해 취약지 환경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